해부학적 Schwa의 설정과 외국어교육

Juhns' Anatomical Schwa for Learning Second Languages

김 충 철 | 전 세종의원장 | Choong Chul Kim, MD
E-mail : cckim@kornet.net

J Korean Med Assoc 2008; 51(4): 377 - 384

Abstract

Every word has its proper schwa which is produced through the mouth by the appropriately posed or positioned chin, tongue, and neck. This proper unaccentuated vowel or syllable for the certain languages is named as Juhn's anatomical schwa. In learning 2nd languages it can be very useful and much linguistic to teach how to voice the proper schwa. In linguistics the proper schwa has been expressed by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or phonography for a long time but Juhn's anatomical schwa is defined that the unaccentuated vowel or syllable is produced by the appropriately posed or positioned chin, tongue, and neck. After birth the child grows and develops the skull to the end and the baby teeth are lost to develop the permanent teeth and the jaw joints are to be firm gradually before the age of 7. For the 7 years the child learns the mother tongue so that his facial appearance becomes alike to his tribe who speaks the same language. The chewing and swallowing is alike with each other. The jaw joints become also firm to speak mother tongue easily. Thereafter the child can voice other language schwa not enough to speak it spontaneously. This is the first idea of the Juhn's locked chin. So we can postulate that the locked chin is made to be the jaw joints as soft as those the children under the age of 7 have for L2. This is the Juhn's unlocking rule and the solution for the Juhn's locked chin. Then we can move our chin and tongue to the next step producing the schwa for the second language.

Keywords : Juhns' anatomical Schwa; Juhn's locked chin; Juhn's unlocking rule
핵 심 용 어 : 해부학적 슈바; 고정턱

정의 및 배경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만 7세 이하에서 배우면 외국어의 발음을 정확히 익힐 수 있으나 그 보다 나이가 많아지면 외국어 익히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모국어의 경우에 부모나 선생님보다 더 말하기를 잘 하는 어린이는 없다. 그런데 외국어에서는 왜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까? 이 의심을 풀어냄으로써 앞으로 외국어 교육의 형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해답을 얻어낸 것이 이 논문의 제시하는 목적이다. 언어학에 있어서 Schwa는 The word "chwa" is from Hebrew *vijx* (*šĕwā'*, /ʃəˈwa/), meaning "nought"라고 정의되고 있는 독일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hwa is the most common vowel sound in English,

a reduced in many unstressed syllables, especially if syllabic consonants are not used:

like the 'a' in *about*/ə'baʊt/
like the 'e' in *taken*/'teɪkən/ and *the*/ðə/
like the 'i' in *pencil*/'pensəl/
like the 'o' in *eloquent*/'eləkwənt/
like the 'u' in *circus*/'sɜː(ɹ)kəs/
like the 'y' in *sibyl*/'sɪbəl/

그래서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악센트 혹은 악센트 음절만이 단어의 중요한 특징으로 가르쳐오고 있다. 그러나 거꾸로 살펴보면 한 단어에서 악센트 모음이나 음절은 하나 혹은 둘에 지나지 않고 약음인 Schwa가 훨씬 많다. 그리고 언어에 따라서 이 Schwa음을 발성하는 구강의 모습은 다 다르다. 그러므로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외국어의 Schwa음을 발성하는 구강의 형태를 밝힘으로써 발음을 쉽게 배울 수 있다. 음성학에서는 IPA(국제음성기호)나 포노그라피(Phonography) 상에서 지칭하는 Schwa이고 필자가 새로 고안한 것은 언어의 고유한 구강 상황과 턱의 위치를 바탕으로 한 Juhn's Anatomical Schwa-田隱 解剖學的 Schwa이다.

서 론

Schwa는 언어의 음성학을 논하는데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단음절어에서는 악센트가 없는 모음을 지칭하고 2음절이나 다음절어에서는 악센트나 고음화되지 않는 음절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Schwa 단어는 각 언어마다 발성과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마다의 고유한 방법으로 언어를 구사할 때 각각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언어의 Schwa는 음성학적으로 그 언어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Schwa는 악센트음의 전후나 다음절어의 고음의 전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악센트 음이나 다음절어의 고음은 음성으로 단어를 청취하는 데 있어서 다른 단어와의 구별할 수 있는 표지가 될 수 있고 내용을 파악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 Schwa의 수효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악센트 음이나 다음절어의 고음의 발성 시간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 단어의 음운이나 운율, 즉 리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Schwa 음은 구어의 시작에서 음의 높이, 즉 키의 기준이 되며 말을 마칠 때 문장의 마침표나 접속사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낮고 악센트가 없는 이 Schwa 음을 각 언어의 특성으로 삼아서 외국어를 익히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Juhn's Anatomical Schwa-田隱 解剖學的 Schwa를 고안하였다.

각 언어의 특성을 포노그라피(phonography)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고 특정지우는 것이 음성학적 Schwa라고 한다면 해부학적 Schwa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언어에 있어서 그 특징적인 혹은 고유한 Schwa 음을 발성(voice)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국어를 습득하고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차이에 대한 다음 글을 읽음으로써 이 해부학적 Schwa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Theorie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re are Alternative theories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L2, Stephen Krashen has proposed a distinction between acquisition - the process by which children unconsciously acquire their native language - and learning, which he defines as "conscious knowledge of a second language, knowing the rules, being aware of them, and being able to talk about them." (S. Krasen이 제안한 이론을 보면 외국어 습득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모국어를 배우는 것은 어린이들이 무의식으로 말을 익히는 과정이고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외국어의 규칙들을 배우고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그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배우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의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음성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악센트 음이나 다음절어의 고음에 대해서만 교육이 치중되고 있다. 가야금 곡을 기타로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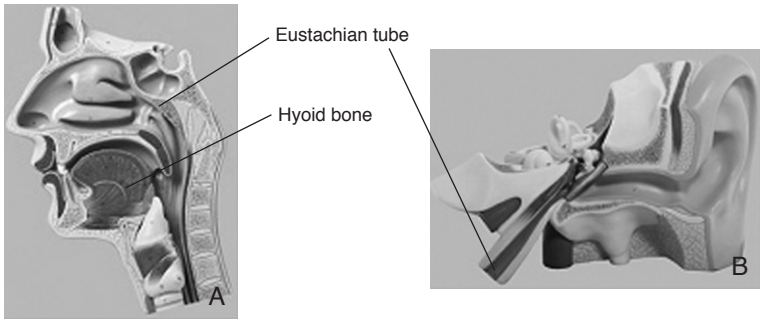


Figure 1. The eustachian tube and the hyoid bone.

하려면 편곡이 필요하다. 편곡한 악보가 있어야만 기타로 가야금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도 마찬가지마다. 언어에 따라 Schwa 음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외국어의 말하기를 배우려면 그 배우려는 언어의 Schwa 음에 맞는 발성을 배워야 한다. 인간이 성대는 매우 세밀한 악기와 다르지 않다. 외국어를 배우려면 자신의 성대를 배우려는 외국어를 발성하는 성대의 상태로 후두와 구강의 환경을 바꾸어 그 발성 연습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해부학적 Schwa-Anatomical Schwa의 근본 이론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7세 전후로 두개골, 즉 머리뼈의 성장과 발육이 끝나며 젖니가 탈락되고 영구치가 모두 나오게 된다. 따라서 턱관절도 그 뼈와 함께 성장과 발육이 끝나게 되고, 사람은 8년에서 13년 동안 그것도 한창 자라나는 나이에 자신의 모국어에 알맞도록 발음하는 교육을 열심히 받는 과정에서 움직일 수 있는 뼈인 턱뼈와 그 관절이 합목적으로 적합한 모양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의 말은 쉽게 발음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이것이 필자의 주장인데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같은 말을 사용하는 종족마다 그 얼굴 모양이 비슷하게 되며 음식을 저작하고 삼키는 모습도 닮게 된다. 이것이 이 이론의 첫 번째 발상인 Juhn's Locked Chin, 고정 턱 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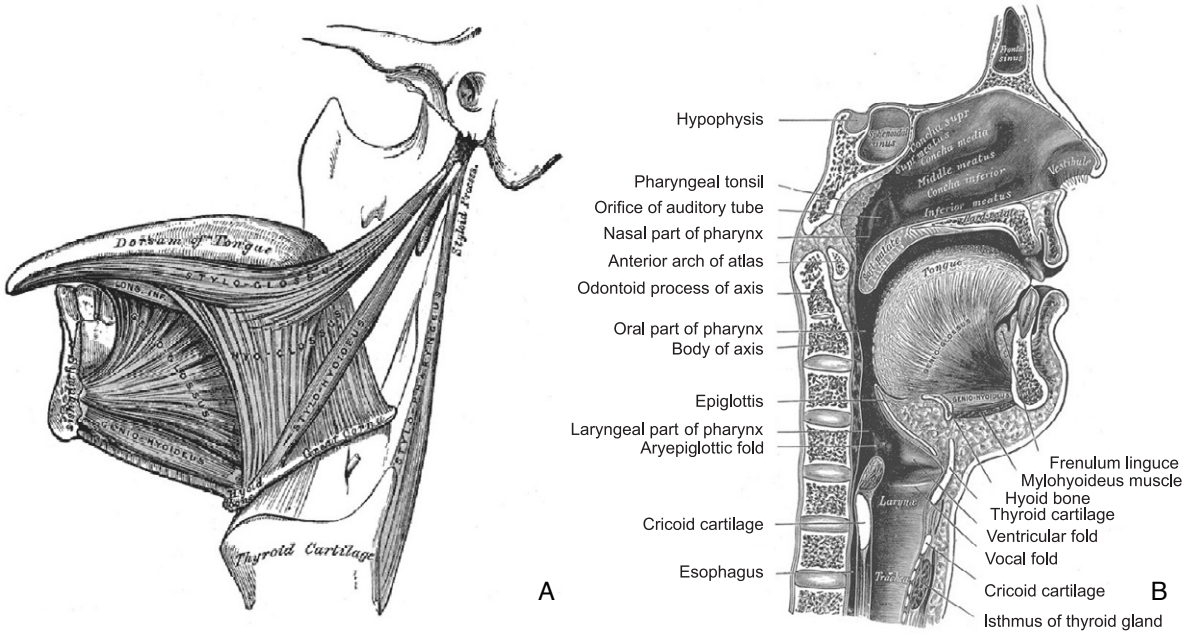
턱뼈와 그 관절이 굳어지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를 배우거나 외국어권의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실지로 외국어 발음을 배우면서 관찰한 고정 턱의 유형을 살펴보면 영어권,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등이다. 그러나 어떠한 외국어를 배우든지 첫 번째로 취해야 할 일은 고정 턱을 허무는 것이다. 고정 턱이라고 해서 시멘트로 굳히듯이 딱딱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허물게 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외국어교육의 과정을 돌아보면 유난히 외국어 발음에 쉽게 적응하는 사람, 즉 개인적 차이가 있었음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 턱관절의 유연성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locked chin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 것인가? 그것은 콜럼버스의 계란 세우기와 같이 그 원리가 간단하면서도 너무 쉬운 것이다. 일곱 살짜리보다 더 어린 아이들처럼 턱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면 끝난다. 입을 부드럽게 다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금니 뒤쪽 부분을 1cm 이상(기분상 느낌) 아래로 내리고 윗니 보다 아래 앞니를 앞으로 혹은 뒤로 위치하도록 턱 전체를 조금씩 내밀든지 뒤로 당겨서 자유롭게 위치한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앞니의 상하 사이가 손가락 반이나 삼분지 일 정도로 벌어지도록 유지한다.

이것이 Juhn's Locked Chin에 대한 Juhn's Unlocking Chin Rule이다(Figure 1).

이와 같이 턱을 내려놓은 상태가 되면 다음에 그 언어에 따른 Schwa 음을 낼 수 있는 2단개로 턱과 혀를 움직이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발성하려는 Schwa 음에 대한 상태가 되면 귀에서는 고막이 누워있는 각도가 달라져서 그 Schwa 음으로 나오는 발음의 언어는 숨소리까지 청취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다. 그리고 턱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경된 혀의 위치와 그 움직임이 혀뿌리에 있는 목뿔뼈(舌骨-hyoid bone)의 활차와 같은 역할을 하여 후두를 끌어 올리거나 내려놓음으로써 후두 속에 들어 있는 성대의 탄력을 변화시키는 데 부가적인 영향력을 주게 된다.

The hyoid bone i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human speech. It allows a wider range of tongue and



The hyoid muscles　　The Orolarynx

Figure 2. (A), (B) Show the hyois bone has 3 intrinsic and 3 extrinsic muscles, and its relations with the larynx and surroundings.

laryngeal movements by bracing these structures against each other. It is not present in any of our closest living relatives, but it did not exist in virtually identical form in Neanderthal man. That suggest, along with other anthropological clues of communication, that the Neanderthal employed some form of language.

(목뿔뼈는 언어를 구사할 때 사용되고 있다. 혀와 후두는 그 운동범위가 넓어서 서로 마주하여 받혀주며 움직이고 있다. 혈연적으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같은 모양으로는 나오지 않으며 네안데르탈인에서도 동일한 모양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대화를 하였다는 인류학적 증거로서 네안데르탈인들에게도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언어가 있었다는 것이다.

역자주: 목불뼈의 모양이 같으면 동물처럼 같은 소리를 내게 됨.)

Schwa 음의 발성은 곧 귀관(Eustachian tube) 주위의 근육을 움직임으로써 이루어지는 청취, 시소(see-saw)와 같은 위치에 있는 불가분의 일체화된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2).

다음은 영어부터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순으로 고유 Schwa 찾기와 발성으로 본론을 시작하게 된다.

본　론

1. 영　어

In linguistics, a schwa is an unstressed and toneless neutral vowel sound and in any language, often but necessarily a mid-central vowel(rounded or unrounded). Such vowels are often transcribed with symbol ə, regardless of their actual phonetic value. An example in English is the ɪ in levitate.

(언어학에서 슈어는 악센트가 없고 또한 음조도 없는 중성(中聲) 모음으로 어떤 언어에서나 모음배열의 중간에 위치하는(입술을 둥글게 혹은 둥글지 않은 상태) 모음이다.

이런 모음들은 흔히 ə로 표기하나 실질적인 음성의 발음 값은 없다. 한 예로서 영어에서는 ɪ로 표기되는데 마찬가지로 실제 값은 없다.)

이상은 Wikipedia에 기술되어 있는 원문과 함께 실은 필자의 번역문이다.

Schwa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독일 학자가 붙인 단어이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독일어 발음인 슈바로 읽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입을 부드럽게 다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금니 뒤쪽 부분을 1cm 이상(기분상 느낌) 아래로 내리고 윗니보다 아래 앞니를 앞으로 혹은 뒤로 위치하도록 턱 전체를 조금씩 내밀든지 뒤로 당겨서 자유롭게 위치한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앞니의 상하 사이가 손가락 반이나 1/3 정도로 벌어지도록 유지한다. 턱을 내리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1~2cm 정도 턱을 살짝 앞으로 내밀지만 혀의 앞 끝은 아래 앞니 잇몸에 댄다. 그리고 얼굴을 비롯한 온 몸에 힘을 뺀다. 그리고 목젖을 아래로 떨어지듯이 하면 성대가 혀 뒤에 거의 평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무게감같은 것을 느껴지게 된다. 이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고 뒤로 민 상태에서 ə-어 ɒ-아 혹은 ɪ-이 하면서 가슴에서 성대로 바람을 올려 보내면 성대가 떨리며 울리는 소리가 입으로 나오게 된다. 손가락을 성대의 피부에 위에 살짝 놓으면 성대가 떨리는 것을 손가락 피부에서 감지된다. 길게 ə-어, ɒ-아 혹은 ɪ-이 의 소리를 내다가 the를 발음해 보자. ə-어 뒤에 나오는 the 발음은 영국어이며 다음에 오는 ɒ-아 음은 호주 발음 the이고 ɪ-이 의 음 뒤에 나오는 것은 미국 발음 the이다. 이 위치에서 ɪ-이 발음상태의 얼굴에서 힘이 가는 곳은 눈과 눈 사이이다. 따라서 미국 사람들이 앉거나 서서 말할 때는 서로 눈과 눈 사이를 응시하는 것처럼 된다. ə-어 발음의 영국 사람들은 코를 내미는 듯이 힘을 주어 상대방의 코를 향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호주인들은 얼굴의 웃니 부분을 서로 맞보게 된다. 그리고 듣기를 할 때에는 이 schwa의 소리를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소리는 이 소리보다 세고 높아서 이 소리가 들리면 완전히 상대방의 목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익숙해지면 어렵지도 않고 귀에 저절로 들어온다. 이 schwa의 약한 소리를 듣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2. 일본어

일본어에서도 턱관절에서 턱을 내리는 것은 영어와 같다. 필자가 말하는 턱을 내린다는 의미는 한국인이 한국말을 하기 쉽게 그리고 한국식으로 음식을 먹기 편하게 턱관절이 그 주위 근육들과 함께 용불용설에 따라 다른 민족하고는 다르게 맞붙어 있는 것을 풀어낸다는 의미다. 턱 관절을 쏙 빼낸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야 하며 그래서 아프지도 않다. 입을 부드럽게 다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금니 안쪽 부분을 1cm 이상(기분상 느낌) 아래로 내리고 아래 앞니를 앞으로 조금 내밀든지 뒤로 당기듯이 한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앞니의 상하 사이가 손가락 반이나 1/3 정도로 벌어지도록 벌린다. 이것이 Juhn's Unlocking Chin Rule이다. 이것은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 해야하는 첫 단계이다. 일본어에서 제일 큰 특징은 발음기호 [t], 파열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일본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은 이 정상적인 [t] 발음이 나오지 못하도록 턱을 1cm(이것도 기분상, 개인차가 많기 때문) 정도 뒤로 당겨 혀의 끝이 윗니에서 1cm 정도 떨어져서 뒤쪽 입천장에 붙였다가 떼면서 [t] 발음이 나오게 한다. 그러면 목젖이(후두)가 앞으로 나오면서 아래로 내려간다. 머리는 약간 위로 올라 간듯하다. 이 상태에서 [t] 발음이 자연스럽게 한글 표시로 띠, 영어 발음기호 [st]에서의 t의 띠와 가까운 발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상태이어야 고막이 수직에 가깝게 서고 고저의 음을 고막이 잘 구별해 낼 수 있다. 이것이 일본어의 턱의 기본 위치다. 가슴과 배는 배꼽위에서부터 앞으로 내밀 듯이 벌어지며 양손은 앞으로 모아서 놓고 있다. 즉 윗배와 가슴으로 소리의 높낮이와 세기를 조절하고 있다. 턱은 이마에서 그 무게를 느끼게 된다. 그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검도와 유도이다. Juhn's Japanese Chin Rule이다. 이 상태의 턱과 혀의 위치에서 혀의 맨 안쪽을 뒤로 살짝 당기듯 누르고 폐에 있는 공기를 성대를 통하여 부드럽게 내보내면 탁음인 일본어 "우(으오)"와 "오(오으)"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때 입술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으

며 따라서 입술은 한국어의 "우-"처럼 둥그렇지 않고 "으" 같이 옆으로 벌어져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소리는 성대를 떨게 하는 탁음이어야 한다. 일본어의 모든 모음은 탁음이다. 손가락을 살며시 목젖 위의 피부에 대면 성대가 떨리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인의 모음은 한국인 보다 낮은 저음을 낸다. 이것이 일본어의 "우" 혹은 "오"의 기본 위치이며 소리다. 이것만 익숙해지면 일본어 발음은 해결된다. う와 함께 자음으로 시작되는 우단 음 "うくすつぬふむるぐずぶ"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필자는 "이う를 일본어의 Schwa"라고 정의내렸다. 그러나 ご와 お를 일본어의 Schwa라고 해도 う와 같다고 생각한다. 흔히 한국인이 발음으로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는 す, ず, つ도 그냥 해결되어 버린다. 영어권에서는 mam, 혹은 mami, 중국인은 ma, 혹은 mama, 한국인은 엄마- 이런 식으로 아기가 제일 먼저 배우는 엄마란 말에는 알파배트의 M자가 보통 들어간다. 그러나 일본어에서는 엄마는 はは이고 아빠는 ちち이다. 왜 그럴까 하고 의심을 품어 본 적이 있는가? 일본어의 Schwa인 う 상태에서 "はは-ちち"하고 발음해보면 얼마나 자연스러우면서 말하기가 쉬운가! 일본인에게는 mama의 발음이 はは 보다 발음하기가 훨씬 어렵고 원래 그 의미도 乳母다. 또한 석유의 단위인 영어 barrel에 대한 일본어의 표기는 バレル이다. 일본인들은 L과 R 음의 구별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들도 L과 R의 발음을 일본식으로 따라하다 보니 영어발음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중국어

앞에서 기술한 대로 제일 먼저 할 일은 턱 풀기다. 다시 한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입을 부드럽게 다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금니 안쪽 부분을 1cm 이상(기분상 느낌) 아래로 내리고 아래 앞니를 앞으로 조금 내밀든지 뒤로 당기듯이 한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앞니의 상하 사이가 손가락 반이나 1/3 정도로 벌어지도록 벌린다. 이것이 Juhn's Unlocking Chin Rule이다. 위에 표기한 대로 턱을 부드럽게 내린 다음 일본어는 뒤로 빠지지만 중국어는 오히려 앞으로 약간 밀어서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맡닿아 위아래로 같은 레벨이 되게 한다. 그러면 턱과 입천장 사이에 원형 공간, 마치 속이 텅 빈 공과 같은 형태로 느껴지게 된다. 이 상태에서 배에서 목을 거쳐 올라 오는 소리로 "니 하오"를 발음해 본다. 이 때에 윗니와 아랫니의 끝이 서로 닿았다 떨어지면 잘 놓여진 상태이다. 턱이 광대뼈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턱의 위치에서 고막이 위아래로 당겨지는 형태가 된다. 귀의 그림을 참조하고 생각보기 바란다. 후두도 위로 당겨지는 느낌이다. 그래야만 고도의 높은 음을 잘 들을 수 있고 높은 소리를 발성해 낼 수 있다. 그러면 턱이 한국어에서 위치 보다 앞, 그리고 영어에서 보다는 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셈이다. 그리고 영어는 턱이 위아래로, 주로 상하로 운동하지만 중국어는 상하 운동도 하지만 비교적 전후 운동이 많은 것이 두드러지게 서로 다른 점이다. 이런 상태라야 ch-, sh-, zh-, r- 등 중국어 특유의 발음이 쉽게 처리된다. 가슴을 펴서 팔짱을 끼고 가슴이 배 전체를 끌어 올리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가슴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배보다 크다. 목소리가 제일 높게 날아가면서 전해지듯이 중국에는 몸이 날아다니는 무술 영화가 많다고 본다.

宠辱若惊 (chǒngrǔruòjīng 총애가 욕이 될까 두려움), 张三李四(ZhāngsānLǐsì 중국에는 이씨, 장씨가 흔하다) 등의 성어를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로 발음해보자. 전보다 쉽게 발음 될 것이다. 턱을 매달은 상태가 처음은 불편하지만 편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영어는 턱을 앞으로 내밀어 뜨거운 찌게를 맛보는 동작에서 턱이 위아래로 움직인다. 중국어는 추운 겨울에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고 난 후 너무 추운 나머지 몸을 달달 떨며 앞니를 상하로 딱딱 부딪치는 턱의 위치에서 턱이 앞뒤로 운동하는 상태와 비슷하다. 이로써 턱의 위치는 끝내고 혀의 위치를 설명해 보겠다. 혀는 우리말의 "우" 혹은 국제음성 부호로 작은 "ʊ"소리를 내는 기분으로 혀의 뒷부분을 눌러서 혀 아래에 성대가 달려 있는 느낌을 받으면 된다. r-兒化를 하지 않는 말이 오히려 중국적이라고 말했듯이 r-兒化되지 않는 Schwa부터 설명하자. 간단하다. 앞에서 말한 대로 중국어 턱 풀기를 한 속이 텅 빈 공과 같은 구강 상태에서 "yi-이"를 발음할 모양을 갖추자. 이 상태에서 가슴으로부터 올라오는 소리로 성대를 울리면서 인사말 "니 하오"를 발음해보자. 독자들이 지금까지 보통 발음해오던 음과 다른 발음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은 r-兒化된 발음이다. "er-어" 상태, 그러니까 "yi-이" 보다 혀의 뒤쪽에 해당된다. 그래서 턱을 약간 앞으로 밀어낸 듯한 기분이 된다. 이곳이 r-兒化의 schwa의 위치이다. 입을 양 옆으로 벌리면서 턱을 약간 앞으로 당기고 이곳에서 "니 하오" 인사말을 해보자. 톤이 더 낮은 말이 나오며 하오의 -오는 아예 발음이 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r-兒化된 발음을 사용하는 중국의 북방 족들은 턱이 길게 발달되어 있다. 높은 음은 Ang이나 Ing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오는 소리이다. 이상이 Juhn's anatomical chinese Schwa이다. 이제 중국어의 리듬을 붙이면 훌륭한 중국어가 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4. 한국어

한국인의 성격 중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빨리 빨리"라는 별명일 것이다. 그것은 한국인의 턱의 위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국인처럼 식사를 빨리 하는 민족도 드물다고 생각한다. 맥주 한 컵을 단숨에 쭉 들이 마시는가하면 냉수도 한 사발, 막걸리도 한 사발씩 쭉 들이마신다. 뜨거운 국을 "어~ 시원하다." 하면서 더운 여름에 잠깐 사이에 뚝딱 해치운다. 이러한 한국 사람들의 턱의 위치는 과연 어떠한가? 그것은 중립이다. 입을 부드럽게 다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금니 안쪽 부분을 1cm 이상(기분상 느낌) 아래로 내리고 아래 앞니를 앞으로 조금 내밀든지 뒤로 당기듯이 한 상태를 만든다. 그러고 앞니의 상하 사이가 손가락 반이나 1/3 정도로 벌어지도록 벌린다. 이것이 Juhn's Unlocking Chin Rule이다. 이렇게 턱을 푼 상태에서 아래 앞니가 위에 있는 앞니의 중간 부분에 닿게 한다. 이것이 한국인의 턱의 위치, Juhn's Unlocking Korean Chin Rule이다. 그리고 혀는 힘을 빼고 혀끝을 웃니 쪽으로 올라간 상태다. 다른 나라의 언어의 위치에서는 턱이 앞으로 나가든지 혹은 뒤로 당기듯이 했고 혀의 위치도 대부분 뒤 쪽을 누르듯 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인 혀의 위치는 오히려 가운데는 내려가고 혀끝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한국인의 성대는 혀의 뒷부분 아래 앞쪽으로 숨겨진 듯 놓여 있다. 이것이 한국인의 혀 위치의 특징이다. 혀의 뒷부분이 성대의 덮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쉽게 빨리 뒤쪽에 있는 식도로 넘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생선가시(fishbone)가 목구멍 윗부분인 인두에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인처럼 찹쌀떡이 후두에 걸려 질식하거나 미국인처럼 고기 덩어리나 땅콩 알로 기관지가 막혀서 질식하는 경우가 드물다.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면 오히려 큰 상치 쌈과 함께 그 가시를 식도로 같이 넘겨버린다. 그리고 한국어의 발성, 즉 소리를 내는 원동력은 배꼽보다 아래 부분에 힘을 주어 배를 앞으로 밀어내며 횡경막이 아래로 내려오게 한다. 팔은 일본인과 반대로 뒤로 돌려 한국 특유의 뒷짐지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운동이 씨름이다. 달리기도 아래배의 회전력을 이용한다. 눈 바로 아래 부분에서 턱의 무게를 느낀다. 따라서 이태리 식의 가곡의 높은 음을 가창할 때에는 눈을 부릅뜨게 된다. 한국어는 단어의 첫 모음에 비밀이 숨어 있다. 한국어의 schwa 상태에서 아버지라고 발음해 보면 이 때 "아버지"의 음은 "아아버지" 와 같이 발음 된다. 중국어의 3성을 거꾸로 발음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혀의 아래에 있는 가성대가 성대와 위아래로 놓여 있어서 "아" 음이 처음은 강하고 나머지는 작게 이어져 울려나옴으로써 한국어의 가락을 만들고 있다. 한국인의 정서를 대표하는 아리랑의 "아"가 바로 "아아" 소리로 시작된다. "아"음만이 아니고 모든 단어의 첫 음절이나 중간이라도 강세를 받는 모음은 이렇게 변한다. 어머니→어어머니, 태극기→태애극기, 대한민국→대애한민국!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명사 앞에는 형용사와 "그"와 "저" 등의 지시사가 붙을 뿐이다. 그러나 동사에서는 반대로 "간다"→ "가안다", "온다" → "오온다"로 발음 된다. 명사의 어간의 음운과 반대로 뒤에 강세가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어 발성에서는 탁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감정이 상하여 공격적으로 "밥줘!" 할 때는 '바압주ㅓ' 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밥주우어"로 된다. 글자로 써보니 어려운 것 같으나 말로 몇 번하면 아주 쉽다. 그리고 어떤 외국인은 이미 한국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현상들은 성대 위에 위치한 가성대(false vocal cord)가 성대에서 올라온 소리를 받아서 연이어 성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되는 한국어의 특징적인 소견이다. 이것이 한국어

리듬의 첫 번째 특징이다. 이것을 한국어의 양극음운(bipolar tone)을 "첫가락(始重韻, the first bipolar tone)"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다. 옛날 한국의 선조들은 한국 여인들의 목소리가 은쟁반 위에 구슬이 굴러가듯 청아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했다. 쉽게 말해서 탁음이 없이 맑은 소리로 말을 하라는 뜻이다. 사실 한국어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가락을 글로 발표하는 것은 이 글이 처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경상도의 schwa 는 "으"이고 전라도는 "어" 충청도는 "으아" 혹은 "으어"이다. 필자가 각 지방어를 완전히 배우지는 못 했지만 어릴 때부터 들어 온 것만으로 판단한 것이다.

결 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모국어를 발성하고 있는 턱이나 구강 상태를 배우려는 언어의 턱과 구강 상태로 변경하여 마치 모국어를 발성하고 발음하는 것과 같이 교육하는 것이 외국어를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외국어마다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리듬을 배워야 하고 강약 혹은 높낮이도 터득해야 한다. 이것도 구강 내에서 비음을 조절하는 구조를 터득하여 익힘으로써 보다 쉽게 구사할 수 있다고 본다. M. Lavator and Tensor Veli Plalatini라는 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근육이 상악동의 공기의 흐름을 조절함으로써 음질을 변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Juhn's Turbinal Valve, 혹은 체크밸브라고 명명했다. 이것은 가능하면 별도로 소개될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각 언어의 Schwa음을 익히는데 약 2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이 후부터 청취력이 나날이 빠르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리듬을 배우는 데는 개인이 익힌 그 언어의 기본 실력에 따라서 배우는 기간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Gray's anatomy 34th.
2. http//en.wikipedia.org/wiki/hyoid_bone.
3. Netter's Atlas of Human Anatomy, 2nd edtion.
4. Daniel A. Kister The study of English Poetry Sogang University Press 1992.
5. Victotia Fromkin & Robert Rodman An Introduction to Language 5th Harcourt Brace College Publshers.
6. 大島正二 漢子傳來 岩波新書 1031.
7. 山口仲美 日本語の歷史 岩波新書 1018.
8. 相員茂 石田知子 戶沼市子 원저 박귀진 민병석 편역 중국어문법책 2001.
9. Edwin Pulleyblank 저 양세욱 옮김 고전중국어 문법강의 2005.
10. 吉川雅之 香港奧語 2005.

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최근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외국어 발음에 대해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논한 것이다. 특히 한국인이 외국어를 발음할 때 턱의 위치를 변화시킴으로써 더욱 정확한 외국어 발음을 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약음이라고 할 수 있는 schwa에 대한 구강의 형태를 밝힘으로써 발음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논문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u/ 발음은 언어학에서는 언어 종류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은 발음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이 부분을 약하게 발음하거나 애매하게 발음하도록 가르치는 경우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일본어 /u/ 발음에 대한 분석은 왜 우리가 일본어 /u/ 발음을 못하는가에 대해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논한 것으로 흥미로운 분석으로 보인다. 다만, 전반적으로 일본어를 포함하여 언어학에서 이야기하는 음성,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논리를 더욱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은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언어를 익히고 발음하는 데 있어 턱뼈와 턱관절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한 경향이 있으며 논문에 기술된 여러 구조물들의 형태나 기능에 대해서는 철저한 문헌 고찰과 실험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리 : 편집위원회]